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KIA엔 까칠한 롯데·한화

김상현, 한방을 부탁해

주간 프로야구 전망대

'해결사' 이범호 1000안타 -10

로페즈·윤석민 어깨에도 기대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6월 27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연속
1	SK	63	38	25	0	0.603	-	1패
2	삼성	68	39	27	2	0.591	0.5	1패
3	KIA	67	38	29	0	0.567	2.0	1승
4	LG	66	36	30	0	0.545	3.5	1승
5	롯데	65	28	34	3	0.452	9.5	2패
6	두산	65	28	35	2	0.444	10.0	2승
7	한화	69	29	39	1	0.426	11.5	3패
8	넥센	65	24	41	0	0.369	15.0	1승

'파워 싸움이 KIA의 순위 싸움을 좌우한다.'

이번주 KIA 타이거즈는 5위 롯데 자이언츠와 주중 원정 3연전, 7위 한화 이글스와 주말 홈 3연전을 치른다. 선두권 싸움에서 밀려나 있는 두 팀이지만 KIA에게는 올 시즌 유독 까칠한 상대들이다.

KIA는 1위 SK와의 전적에서도 6승4패로 앞서 있지만 롯데에게 4승5패, 한화에 5승6패를 기록하면서 두 팀에게만 열세를 보이고 있다.

롯데와 한화의 화끈한 타력에 번번이 무너지면서 아쉬운 패가 속출했다. 올 시즌 KIA의 팀 평균 방어율은 3.88로 SK, 삼성에 이어 3위를 달리고 있다. 그러나 한화전 방어율이 4.82, 롯데전 방어율은 5.33까지 치솟는다.

만만치 않은 상대와의 대결을 앞둔 KIA는 힘과 힘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주 기록을 눈앞에 둔 이범호와 김상현이 힘 대결의 선봉에 선다.

올 시즌 팀의 3번 타자이자 해결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이범호는 10개의 안타만 더 때려내면 62번째 1000안타의 주인공이 된다.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 속에서 팀 타선과 3루를 책임지느라 손목과 허벅지 통증을 안고 있는 이범호는 지난주 계속된 비에 달콤한 휴식을 얻으며 충전을 마쳤다.

김상현은 100홈런에 2개를 남겨두고 있다. 김상현은 지난 23일 SK와의 경기에서 '괴물' 김광현을 상대로 연타석 스리런을 장식하며 자신의 한 경기 최고 타점(6)을 만들어냈다. 그동안의 부진을 만회하는 시원한 홈런 두 방을 날린 김상현은 55번째 100홈런 주인공 자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김주형의 힘도 눈길을 끈다.

롤러코스터 타격으로 팬들의 가슴을 졸이고 있는 김주형이지만 23일 김광현에게 시즌 6번째 홈런이자 경기장을 훌쩍 넘어가는 장외홈런을 터트리며 힘자랑을 했다.

또 주중 만나게 되는 롯데에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주형은 지난 5월 사직 원정경기에서 3경기 연속 홈런을 쏘아올리는 등 롯데전에서 0.375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제는 실책이다. 결정적인 승부처에서 실책을 기록해 팬들의 원성을 샀던 김주형은 최희섭의 부상으로 1루 수성의 임무도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

마운드에서는 로페즈가 해결사 역할을 맡는다.

화요일과 일요일 두 차례 선발 로테이션을 소화해야 하는 로페즈는 올 시즌 롯데와 한화와의 경기에서 패 없이 4승을 챙겼다. 특히 한화전에서는 가르시아에게 만루포를 맞고도 승을 가져오는 등 3연승 중이다.

지난 주말 3연전 내내 선발 출격을 준비해왔던 에이스 윤석민은 한화를 상대로 9승에 도전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30년 별중의 별

1위 이만수·2위 한대화

투수부문 선동열 1위

'헐크' 이만수가 프로야구 최고의 별이 됐다.

이만수(53) SK 2군 감독이 27일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발표한 '프로야구 30주년 레전드 올스타 베스트 10' 선정 투표 최종 결과에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4월29일부터 6월19일까지 진행된 투표에서 이 감독은 74.0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프로 원년인 1982년 삼성에서 데뷔해 안방을 책임졌던 이 감독은 1984년 최초로 타격 3관왕(홈런·타율·타점)에 오르는 등 '헐크'라는 애칭으로 사랑을 받은 스타 선수다.

한화 한대화 감독이 3루수 부문에서 73.41점을 기록하면서 전체 2위에 올랐고, 삼성 2군을 지휘하고 있는 장효조 감독이 외야수 부문에서 69.57점으로 3위를 차지했다.

이번 투표는 야구인(40%)과 언론인(30%), 팬(30%)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투표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최종결과가 발표됐다.

포지션별로는 선동열 전 삼성 감독이 57.8점으로 투수 부문 올스타에 선정됐고, 1루수 부문에서는 장종훈 한화 2군 코치가 54.72점으로 1위에 올랐다.

최고의 키스톤 콤비는 2루수 부문에서 51.17점을 받은 박정태 롯데 2군 감독과 62.99점으로 유격수 부문에 이름을 올린 김재박 전 LG 감독으로 구성됐다.

외야수 부문에서는 장효조 감독과 함께 스포츠채널 해설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는 양준혁(66.39점), 이순철(42.54점) 전 LG 감독이 올스타로 선정됐다. 김기태 LG 2군 감독은 32점을 받아 최고의 지명타자가 됐다.

■ 프로야구30년 레전드 올스타 베스트 10

포지션	야구인	언론인	일반팬	최종결과
투수	선동열	선동열	선동열	선동열
포수	이만수	이만수	이만수	이만수
1루수	장종훈	장종훈	장종훈	장종훈
2루수	박정태	박정태	박정태	박정태
3루수	한대화	한대화	한대화	한대화
유격수	김재박	김재박	김재박	김재박
외야수	장효조	장효조	장효조	장효조
외야수	양준혁	양준혁	양준혁	양준혁
외야수	이정훈	이순철	이순철	이순철
지명타자	김기태	백인천	심정수	김기태

프로야구 30년을 대표하게 된 레전드 올스타 10명에게는 골든듀에서 특별 제작한 300만원 상당의 기념반지가 수여된다.

이들은 또 7월23일 잠실에서 열리는 올스타전 특별 이벤트에 참여하며, 향후 건립될 야구박물관에 30주년 레전드 베스트10의 별도 코너가 마련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이만수

프로야구30년 타이거즈30년

〈25〉 이종범 입단과 V7

1993시즌 해태 타이거즈는 투-타, 신-구의 명암이 극명하게 부각된 가운데서도 파죽지세로 페넌트레이스와 포스트시즌을 평정하고 V7의 대위업을 이루었다.

해태는 4월 23일 8승4패로 단독 선두로 나선 이후 단 한 번도 선두 자리를 뺏기지 않은 채 81승3무42패(0.655)의 성적을 거두며 페넌트레이스 1위를 차지했다.

해태는 '국보' 선동열이 부활하여 스토퍼로서의 새로운 보직을 완벽하게 수행한데다, 10승대 투수 6명을 앞세운 마운드의 힘으로 지키는 야구의 진수를 보여주었다.

해태는 간판 타자들의 노쇠화로 팀타율 4위(0.251)의 부진 속에서도 이종범이라는 슈퍼스타의 입단으로 투타의 불균형을 극복할 수 있었다.

1993시즌의 준플레이오프는 서울 라이벌전 끝에 4위 LG 트위스가 3위인 OB 베어스를 2승1패로 꺾고 플레이오프전에 진출했으나, 2위인 삼성 라이온즈에게 2승3패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바람의 아들' 눈부신 활약

페넌트레이스·KS '평정'

결국 1위 해태와 플레이오프 승자인 삼성간의 한국시리즈 통산 세 번째 숙명의 맞대결이 벌어졌다.

한국시리즈 1차전에서 해태는 조계현·선동열이 1실점의 효과적인 계투로 마운드를 잘 지킨 가운데 삼성 구원투수 유명선의 난조에 7회에만 4득점으로 연결하는 응집력을 보이면서 5-1 역전승을 거두었다. 2차전은 김정수·이강철 듀오가 초반에 무너진데다 삼성 좌완 김태한을 공략하지 못하고 해태가 0-6 완봉패를 당했다. 3차전에서는 문희수·선동열·송유석이 선방했으나 광주상고출신 삼성 잠수함 투수 박충식의 15이닝 2실점 완투의 고군분투에 막혀 2-2 무승부를 기록하고 말았다. 4차전은 해태 이호성이 3안타로 분전했으나 이대진·이강철이 대량실점하며 추격의 의지가 꺾인 채 2-8로 대패하고 말았다.

4차전까지 광주와 대구를 오가며 홈 앤 어웨이 경기를 마치고 중립지역인 잠실로 옮겨 5차전이 치러졌다. 해태 대타 '노지심' 장채근이 투런포로 달아나고 삼성 '헐크' 이만수가 투런포로 쫓아오는 포수 홈런 공방전을 펼친 끝에 '싸움닭' 조계현의 2실점 완투의 역투가 더해져 해태가 4-2로 승리를 거두었다. 6차전에서는 해태 선발 문희수가 1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강판당했지만 김정수·선동열이 무자책점의 효과적인 계투로 삼성 강타선을 막아냈고, 김성한의 극적인 역전 결승 투런포가 나오면서 또 다시 4-2로 승리했다. 고별전이 된 7차전에서는 해태가 '호랑이 사냥꾼' 박충식을 효과적으로 공략한데다 이강철·송유석·선동열의 철벽 계투로 4-1로 승리를 거두었다.

한국시리즈 MVP는 29타수9안타(0.310), 4타점, 7도루로 적진을 헤집고 다니며 교란시키는데 큰 공을 세운 '슈퍼 루키' 이종범이 차지했다.

김 재 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청야니 LPGA 챔피언십 우승…메이저 4승

새로운 골프여제 청야니(대만)가 가장 어린 나이에 메이저대회에서 4승을 올리는 기록을 세웠다.

청야니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피츠퍼드의 로커스트힐 골프장(파72·6506야드)에서 열린 올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인 웨그먼스 LPGA 챔피언십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버디 8개에 보기 2개를 곁들여 6언더파 66타를 적어냈다. 합계 19언더파 269타를 친 청야니는 2위 모건 프레셀(미국·9언더파 279타)을 무려 10타 차로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